

시 카 고 大 學

鄭 鎮 星

(德成女大 社會學科)

I. 歷史와 學風

시카고대학(The University of Chicago)은 John P. Rockefeller 에 의해 설립된 私立, 非宗派的 남녀 공학의 대학이다. 1891년 William Rainey Harper 가 첫 총장으로 지명되고 이듬해 10월 594명의 학생과 103명의 교수진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비교적 늦은 출발을 한 시카고대학은 여러 획기적인 시도와 투자를 통해 짧은 시간내에 중요한 대학으로 부상하였다. 우선 좋은 교수진의 확충에 주력하여, 초기 교수진 중에는 8명의 前 대학 총장과, 전국의 유명 대학 교수들이 포함되었으며 아직 보수적이었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여교수의 채용에도 과감하였다 한다. 學制면에서도 시카고대학은 여러 가지 시범적 제도를 시도하여, 4 quarter 제도, 평생 교육프로그램, 학생과 교수진에 있어서 女性의 완전한 동등권 등이 시카고대학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시카고대학의 주요 부분은 學部和 4개의 대학원 分科(생물학, 물리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6개의 전문대학원(사회사업, 의학, 경영학, 신학, 법학, 도서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대학원 수준에서 몇개의 科나 分科가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아프리카연구, 극동아시아

아연구, 사회과학종합석사프로그램 등)이 있다.

대학의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시카고대학은 단연 大學院 중심의 대학이다. 8천여 명의 전체 학생 중 70% 가량이 대학원생이다. 대학원 중심이라는 특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學部の 규모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TA(Teaching Assistant) 등을 통해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면에서 제약이 있으나, 진지한 研究의 분위기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 중심의 학풍은 이 대학의 가장 뚜렷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설립 당시부터 연구(research)와 가르침(teaching)을 강조한 시카고대학은 다른 유명대학에 비해 學界로 진출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다. 매년 대학 졸업생의 3/4 이상이 학문의 길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의 졸업생의 38%가 敎育에 종사하고 있다 한다. 연구가 강조되는 분위기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연구에 남는 비율이 다른 대학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他전문대학원에서도 계속적인 연구에 참가하는 비율이 많아 Ph.D. 프로그램이 매우 활발하다. 이렇게 거의 전적으로 學界와만 연결되는 대학의 전통은, 시카고대학이 他大學에 비해 작은 학교 규모를 가지고 18개 분야에서 미국내의 10위권에 속하는 탁월한 학교의 質(The Stanford Observer, February

1983. p. 3)에도 불구하고 학계 이외의 일반에게 는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가 되 기 도 한다.

응용분야보다 순수학문과 기초과학을 강조하 는 것도 시카고대학의 다른 하나의 특징이다. 대학원의 주요 4분과의 구성이 이 점을 여실히 보여 주며 경영학, 도서관학 등의 전문대학원 까지도 실제의 응용기술에 더하여 기초이론의 탐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순수 학문과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은 실 질적인 기술(예를 들면 컴퓨터과학)의 뒷받침 면 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연구 중심의 학 풍과 함께 시카고대학의 대단한 자부심을 형성해 주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생물학과 물리학의 두 분과는 자연과학계통의 여러 응용분야의 기초를 이루는 연구의 중심지 로서 많은 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내었다. 수천 만 인명을 앗아간 원자폭탄의 아픈 기억도 원자 핵실험의 발상지인 시카고대학의 한 부분이다. 중앙도서관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조그마한 돌기담비는 그러한 기억을 되살려 실험장 바로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한다. 거의各科別로 갖추

▼ 시카고대학의 언어학과는 한글의 창의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한글날을 기념하기도 한다(사진은 극동언 어문화관)



어지 있는 도서관과 실험실을 비롯한 제반 연구 설비에 더하여 시카고대학에서 일대 멀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와의 긴밀한 관계도 이 대학 자연과학분야의 발 전에 한 몫을 한다. 그것은 가장 큰 정부연구기 관 중의 하나로 물리학, 생물학, 환경과학 등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폭 넓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특히 energy의 연구와 발전의 주요한 중 심지이기도 하다. 수학, 통계학, 지질학, 미생 물학 등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미국내에서 5위 안의 수준에 속한다. (The Conference Board of Associated Research Council의 평가, New York Times, 1981. 1.)

인문과학분야에서도 시카고대학은 가장 우수 한 대학으로 손꼽힌다. 바로 앞서 인용한 통계 에 의하면, 영문학과, 철학과, 언어학과, 음악 과는 미국내에서 5위권에 속한다. 특히 이 대학 언어학과는 한글의 창의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한 글날을 기념하기도 한다.

시카고대학의 위치를 덩실공히 미국의 최고로 이끌어 놓은 것은 무엇보다도 社會科學분야이다. 거의 모든 과마다 시카고學派라고 불리는 특 특하고 굳건한 학풍을 세워 전세계적으로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질이 높고 인정받는 우수한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사회학과는 1892 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사회학계를 이 끄는 중요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1920~30년 때에는 Park와 Burgess 등의 이 대학 사회학자 들이 중심이 되어 시카고학파가 형성되었으며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라고 하는 사회 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잡지가 출판되 고 있다. 사회학 이론과 방법론, 계층, 조직론, 인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탁월한 교 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역사학적 연구가 신진 학자를 중심으로 학생들간에 관심을 모으 고 있기도 하다. 국립여론조사센터(NORC)가 바로 학교 옆에 위치하여 통계처리를 이용하는 사회학 방법의 발전과 학생들의 훈련 및 인차리 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Freedman의 보수주의 경제학이론으로 유명 한 경제학과도 독특한 학풍으로 시카고 경제학 파를 이루고 있으며, 심리학도 Dewey, Mead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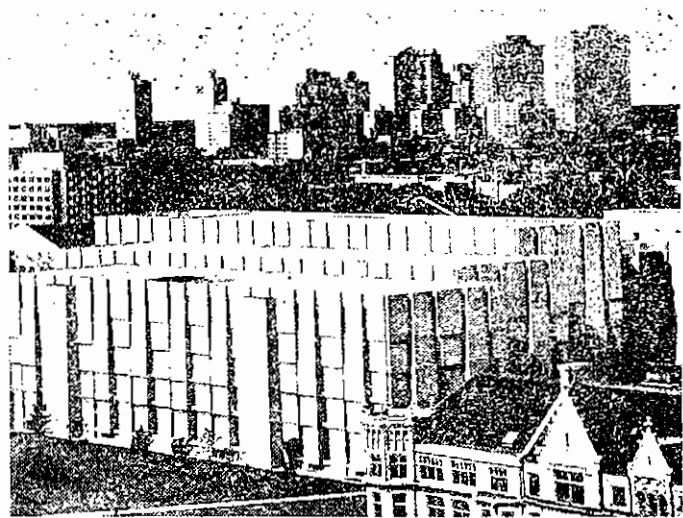
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학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수적인 경향이 다소 흐르는 시카고 사회과학의 분위기 속에서 정치학과에 서만은 보수적인 전통이 한편 남아 있는 가운데 급진적인 이론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탁월한 맑시스트이론가들이 다수 교수진에 들어 있으며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라는 다소 급진적인 잡지도 출간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역사학적 연구가 중요시되는 학풍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 공헌이 큰 몇몇 교육학자들을 통해 그 영향력이 전해진 교육학과와 저술면에서 미국내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학과도 시카고 사회과학분야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류학과는 주요한 잡지를 출간하고 미국내의 1, 2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학, 신학, 철학 등을 연합한 종합과학적 성격을 띠고 배우고 있는 세미나 프로그램을 다수 가지고 있는 사회사상 Committee 도 하나의 사회과학분야의 학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영대학원은 MBA 프로그램이 중심이지만 Ph.D.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대도시 대학의 특점이 반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경영학교육의 시카고철학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세부적인 경영 practice보다도 경영을 뒷받침하는 기초과학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둔다. 즉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구를 통해서 경영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주요잡지(*Journal of Business*)를 출간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점은 도서관학 대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초점은 도서관 운영의 기술보다도 이론과 연구로서, 전문적인 도서관원뿐 아니라 학자를 배양하고자 한다. 주요 잡지(*Library Quarterly, Bulletin of the Center for Children's Books*)를 출판하기도 한다.

신학대학원(divinity school)은 1865년에 독립



▲ 7 중앙도서관(Joseph Regenstein)은 인문·사회과학의 대학원 연구도서관이지만 타분야의 학생들도 즐겨 사용하는 대학의 중심이다

된 학교로 있다가 1891년 시카고대학 설립 당시 시카고대학의 한 부분으로 포함된 것이다. 여기도 他신학대학과 달리 특정 종교의 敎理에 전향하기보다 종교의 학문적 탐구를 강조한다. 학문의 방법론들을 위하여 사회과학의 연관도 따라서 중요하다. 시카고 신학대학원은 특히 주변의 환경 때문에 발전이 크다. 시카고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Hyde Park-Kenwood 지역은 주요 신학대학이 7개나 모여 있는 신학교육의 중심으로 유명하다.

법대, 의대, 사회사업대학원도 연구분위기가 짙고 사회에 대한 참여와 공헌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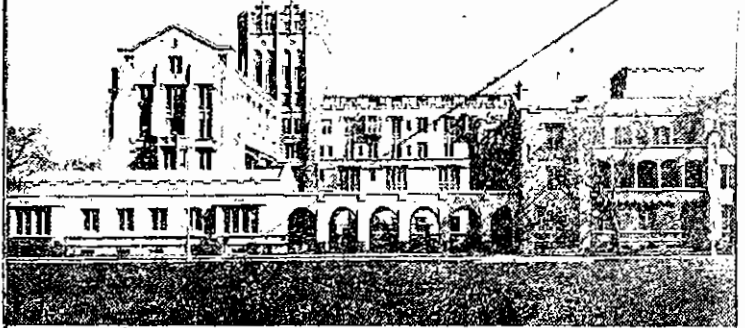
이 밖에 국제관계, Africa 연구, 사회과학종합석사프로그램 등 다수의 석사, 혹은 박사과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 종합학문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 극동연구센터(Far Eastern Studies Center)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곳은 중국, 한국, 일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나, 아직까지는 중국과 일본에만 편향되고 있다. 주르 언어와 역사를 다루는 이곳은 매일, 배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십 종류의 신문, 잡지의 최근 자료들을 포함하여 중앙도서관 한 층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어 Harvard Yenching 도서관, Michigan Asian 도서관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 연구의 중요한 원천지가 되고

있다. 매년 영어로 발행된 동치보고서를 비롯하여 일본 식민지시대의 자료도 상당하다.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연구센터내에 한국학(Korean Studies) 프로그램과 자료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것은 최근 한국이 일으킨 경제적 붐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과 지난 3~4년간 갑자기 증대된 시카고대학의 한국 학생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일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연결의 허점(missing point)이 바로 한국 연구에 의해 메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학준비위원회가 시카고대학 여러 과의 교수들로 이루어져 교수진, 자료, 재정 등의 충원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시카고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그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시카고대학 출판사(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와 도서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시카고대학 출판사는 지난 80년간 약 5,000권의 책을 출판해서 그 중 3,000여 권은 아직도 출판중에 있다. 매년 평균 200권의 수준 높은 단행본과 시카고대학내의 각 분야에서 발행되는 41개의 잡지를 출판하여 매년 판매되는 부수로는 미국내의 가장 큰 대학 출판사가 된다.

도서관은 학부생들을 위한 Harper 도서관과 법, 의학, 화학, 수학 등의 다수의 단과도서관, 그리고 중앙도서관(Joseph Regenstein)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의 대학원 연구도서관이지만 다른 분야의 학생들도 즐겨 사용하는 대학의 중심이다. 장서의 값이 대단하고 開架式과 컴퓨터화된 대출 및 기간 연장 등의 편리한 제도와 편안하고 아늑한 독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의 바로 주변에 위치한 200개 대학의 협동도서관인 Center for Research Library가 자료탐색에 더욱 큰 편의를 준다. 대학원 중심의 강한 연구 분위기 때문에 찾는 책이 종종 대출중으로 되어 있어 짜증나는



▲ 학생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는 이용하기 편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일이 많지만 곧바로 되찾는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오히려 연구에 활력을 주는 기분이 든다. 자료의 부족에 심한 갈증을 느꼈던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이러한 도서관 설비는 무엇보다도 가장 부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원하는 책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서점도 연구를 돕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 시카고대학은 학교내에 두 개의 큰 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점은 CTS Bookstore로 불리우는 곳이다. 늘 새롭게 구입하고 있는 책의 어마어마한 량, 주문서적의 신속한 구입, 등록된 회원에게 제공하는 10% 할인, 한 달에 한번씩 몰아서 할 수 있는 계산, 해마다 봄학기말에 하는 20% 할인 등의 편리한 제도들 때문에 학생들은 이 서점을 시카고대학의 보배라고 말하곤 한다. 대학내와 주변에 있는 서너 개의 헌책방, 도서관과 기타 여러 기관에서 마련하는 헌 책 Sale은 학생, 특히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욱 고마운 존재이다. 정기적인 헌책방의 순례와 책 Sale에의 참여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을 준다.

II. 연구의 여건

學部학생의 수가 적고 연구의 풍토가 강한 탓으로 대학내에는 공부 이외에 스포츠, 문화활동 등의 다양한 학생활동은 미미하다. 연구 중심의 시카고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며 분위기가 매우 건조하고 경쟁적이다. 1년 4학기

제도(quarter制)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는 더욱 숨가쁘다. 전반적으로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원하는 대부분의 미국 대학생들에게 시카고대학은 가장 재미없는 대학의 하나로 여겨진다고 한다.

경쟁적인 분위기는 입학과 시험행정과도 관계 깊다. 입학과 시험정책은 각 학마다 다소 다르나 대부분은 처음에 많은 수의 학생을 뽑아 여러 차례의 시험 또는 논문심사과정을 통해 거르는 방식을 따른다. 사회학과의 경우, 대학원과정에 매년 40명 내외의 학생들을 받아들여 1년 후에 박사학위입학시험(preliminary exam.)을 치르게 하는데, 여기서 중간 탈락자, 석사 수준에 그칠 학생과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을 가른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이전에 두 개의 전공 분야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제학과와 정치학과의 경우도 이름만 달리 한, 비슷한 입학과 시험제도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락되는 학생들이 많으나, 마지막 논문과정은 더욱 힘든 절차로 되어 있다. 학마다 다소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부터 세분화된 관심분야로 들어가기보다 광범한 기초 이론의 훈련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와 세심한 배려가 없이 최종 심사과정만 엄격히 놓여져 있는 점도 중요한 이유이다. 그것은 교수들이 지도보다 연구에 역점을 둔다는 점, 학생수가 많다는 점 등에서 연유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學風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학생들 자신의 독립적인 연구 분위기는 시카고대학의 단점이자 장점이 된다. 논문을 쓰는 과정을 매우 외롭고 힘든 것으로 만들고, 시카고대학의 박사과정을 다른 대학보다 길게 하지만, 독립적인 연구의 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카고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회고이다.

學費는 다른 사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비싸다. 지난해 사회과

학분과 대학원과정의 수업료와 보험료는 한 학기에 3,150\$이었으니, 여름학기론 때고 새 학기만 등록한다 해도 1년 등록금만 10,000\$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드물며, 입학정원이 많고 學部 규모가 작으므로 RA (Research Assistant), TA (Teaching Assistant) 등을 통한 재정적 보조도 비교적 힘들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1년 후면 얼마간이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기회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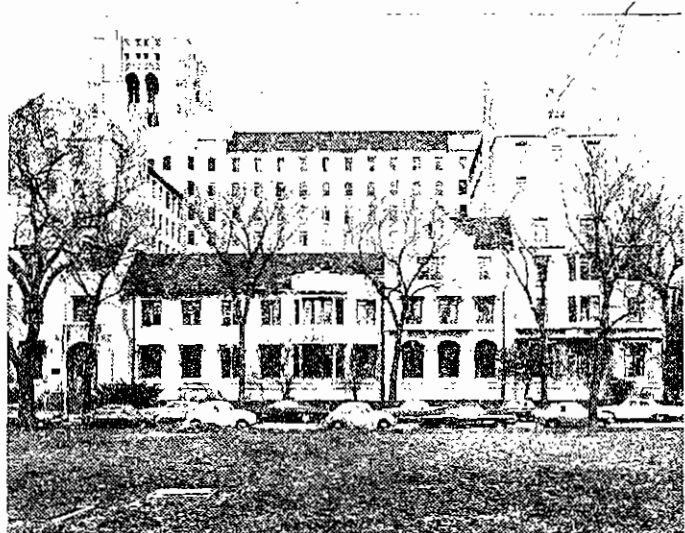
이러한 제반 여건에 한 가지 더하는 어려움은 학생과 교수들의 매우 및 평가와 여러 행정면에서 외국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시카고대학은 유학하기에 일반적으로 '힘든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도전해볼 만한 매력을 지닌 학교이기도 하다.

Ⅲ. 학교환경

시카고대학은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에 위치해 있다. 기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봄, 가을이 더욱 짧고, 독하게 춥고 눈이 많은 겨울과 습하고 더운 여름만으로 이루어져

▼ 미혼학생기숙사, 특히 외국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International House가 있다



있다. 그러나 대학의 바로 동쪽 옆에 붙어 도시의 東西를 길게 잇는, 바다라야 더 적절한 듯한 광대한 미시간호가 마음을 푸근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해준다.

시카고대학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약 8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환경을 접할 수 있고, 자기 車 없이도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해 대부분의 장소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연주를 학생할인포로 경청할 수 있고, 인상파그림 모음으로 유명한 Art Institute를 비롯하여 다양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수의 한국 교민들이 시카고 북쪽에 거주하여 한국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은 특히 큰 이익이 아닐 수 없다. 도시의 환경이 연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욱 중요한 利點이다. 도시사회학의 발전에 있어서, 경제학·경영학의 연구의 場으로서, 또 각 전문대학원의 직장과의 연결면에서 시카고는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대도시 대학이 지니는 단점도 또한 적지 않다. 불황화, 우범화되기 마련인 흑인밀집지역이 인접해 있다는 점이 그 대표적 측면이다. 시카고대학은 학교 주변지역의 경화를 위하여 많은 성공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 미국내의 도시정화를 위한 한 모델을 제공해 왔다. 흑인지역의 확산을 막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낮에 학교 주변을 도는 유료버스와 별도로,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중앙도서관 앞을 출발점으로 하여 每 20~30분마다 학교 주변의 거의 全域을 포괄하는, 코스가 다른 4개의 minibus를 운행하고 있으며, umbrella service라 하여 학생이 학교 주변 어느 곳에서나 위험을 느끼면 학교순찰차를 부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시카고대학의 의료보험은 손꼽힌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보다도 포괄하는 부분이 높고, 이용하기 편하다는 것이 정평이다.

학교당국은 학교 주변의 건물들을 다수 확보하

여 가족기숙사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혼학생기숙사, 특히 외국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1932년 Rockefeller, Jr. 가 세운 International House가 있다. 처음 유학하여 많은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시카고대학 건물은 영국 고딕스타일의 건물로부터 유명한 현대건축가의 작품에 이르는 지난 90년간의 건축의 경향을 보여 준다. 학교의 중심인 quadrangle 마당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잇는, 부분 부분이 아름다운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석조건물은 유의해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별로 크지 않은 이 마당은, 지금은 없어져 버린 동숭동 文理大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조용하고 知的인 느낌을 준다. 대학의 교정은 국립지정의 주요한 조각도 다수 가지고 있다.

IV. 유학실태

불과 5~6년 전만 해도 시카고대학의 한국 학생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는데, 그간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시카고대학 한국인 학생 주소록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수는 100명에 달하니 가족을 포함한 한국인 모임은 적지 않은 규모이다. 한국학생회는 일년에 두 번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학생 자녀들을 위한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부학생들은 한국학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Korea Festival을 벌이기도 한다.

대체로 시카고대학에서 한국 학생은 성공적이며, 최근 더욱 그러하다. 대개 20%가 합격하는 어렵기로 소문난 경제학과 Core 시험에 한국 학생의 합격율은 90%에 가까와 학교당국의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在韓 시카고대학 동창회는 매년 1번의 정기적인 모임과 여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말한 바, 시카고대학내 한국학연구프로그램에 강력한 후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해 해외유학 후원, 국내 학부생 지원, 한문장학회 등의 다양한 장학 사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